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가을 야구시즌이다. 하위팀에 업셋 당하거나 포스트 시즌 문턱에서 탈락한 팀들은 '감독 나기' 시위대와 만난다. 이승엽 감독은 사상 최초의 5위 결정전에서 3-1로 앞서다 8회말 3점 홈런 한방으로 3-4 역전패 당했다. 그때는 9월 '41타수 1피안타' 기록의 마무리 투수를 기용하지 않았다. 최종결정은 감독이었고 김광현 기용은 결국 5분 만에 패배로 돌아온 '시즌 마지막 승부수'였다.

넥창한 승부 세계의 예외는 없다. 리더십 심판의 주기는 더 빨라졌고 팬들의 눈높이는 더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그의 권력은 더 조금 해지고 더 높아진 국민 수준에 맞추고 있을까? 최근 약화일로로 '김건희 리스크'는 임계점이 멀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매직'과 '독심'의 감독도 있다. 준플레이오프 명승부를 펼친 염경엽 감독과 이강철 감독이다. 두 감독의 공통점은 정체성이다. 뚜렷한 자신만의 '색깔 있는 야구'다. 그들은 자신의 야구 철학과 소신 그리고 개인과 팀 특징과 강점의 극대화를 통해 '이기는 야구'를 추구한다.

이승엽 감독과 윤석열 대통령

'염경엽표 야구'는 공격야구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도루 실패가 게임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되었을 때도 그는 "같은 상황이 또 온다면 또 뛰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독심의 공격야구다. "3 타자가 다 초구치고 죽어도 뭐라 안해요"라며 포스트시즌 최초 3 타자 연속 초구 아웃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내가 하던 야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준플레이오프 1차전 패배에도 2차전에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도 염 감독은 모든 경기에 똑같은 타순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강철 야구는 직관과 집중력이다. 특히 그의 투수 교체 타이밍은 '예술의 경지'라는 평가를 듣는다. 이 감독의 직감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핵심이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이 감독은 '10게임 1할3푼의 타자'를 기용했고 그는 선제 투런 홈런으로 화답했다. "오늘 혼란 때 괜찮아 보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승엽 감독은 정체성 혼란의 위기 속에 있다. 그는 '번트왕 된 홈런왕'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팀을 올 시즌 리그 2위의 희생번트를 기록했다. 작전 야구의 스타볼이다. 여기에 불펜 과부하의 '혹사 논란'까지 뒤따른다. 올해 이 감독은 '와일드카드 업셋의 첫 희생양'이 되었다. 시즌 상대전적에서 12승 4패로 압도했던 팀에 '18 이닝 무득점'을 기록하며 2연패를 당했다. 포스트 시즌에서 그는 3전 전패다. 팀의 '사상 최초의 7 시즌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은 막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이승엽 감독의 팀은 전통적으로 강공 중심의 '빅볼'야구다.

이 감독이 2년 연속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지만 '감독 나기' 시위를 만난 이유는 분명하다. 정체성 논란이다. 여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니 설상가상이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팀은 암흑기에 들어선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할까? 2022년 3월 사람들이 왜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는지 알고 있을까!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의 정체성은 '상식과 공정'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의 정체성은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역할의 미션을 잃어버린 정체성 혼란의 권력은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으로 지금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으로 벼랑 끝에 선 승부가 가능했고 그는 결국 승리했다.

윤 대통령은 강을 스스로에게 제대로 써야하는 상황으로 몰린다. 예상보다 세고 기대보다 높은 강력한 처방이 불가피하다. 가족과 부부의 논란은 결국 대통령의 문제로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다.

'부부의 세계' 이후 대통령의 승부수는 남은 임기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일거에 만회하고 나아가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만의 무기다. 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5개 팀은 내년 시즌 준비에 바로 들어간다. 미래는 준비와 반성부터 시작이다. 11월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임기 후반기의 국정쇄신을 향한 성찰과 대안 모색의 시간이 윤 대통령에게 필요하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순교교회 담임목사

나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게 했다. 당시에는 잘 부르는데도 몰랐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나에게 노래를 자주 시켰던 것으로 봐서 잘하지 않았나 싶다. 타고난 것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니 더 잘하게 된 듯하다. 대학교에서 찬양 동아리를 거쳐서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을 오래 했다. 나는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하지만 교회에서 찬양대원도 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였다.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흡의 중요성이었다. 좋은 호흡은 음의 강약과 장단을 조절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음을 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호흡이 안정되면 쉽게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 결국 쉬지 않고서는 더 이상 노래를 이어갈 수도 더 좋은 소리를 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인생, 신앙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을 이어가거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면서 호흡을 고를 필요가 있다. 쉬는 곧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준비이다. 작곡가의 악보에도 쉬

적절한 쉬의 중요성

표가 없는 곡은 없다.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 햇빛이 쬐는 날이 있는가 하면 구름이 낀 흐린 날도 있는 것이다. 농번기인 봄, 여름, 가을이 있는가 하면 농부들이 쉬는 겨울 농한기도 있는 것이다. 밀물이 있는가 하면 썰물도 반드시 있고, 밤의 숙면이 있어야 낮 시간의 힘찬 활동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어떻게 일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쉬는가도 참 중요하다. 잘 쉬어야 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식(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의미)하는 것을 잘 지켜야 한 주간 6일 동안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좋은 쉬는 신앙과 삶에 있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다.

KBS 방송의 교양프로그램 중에 '우리말 겨루기'라는 것이 있다. 가끔 보다 보면 긴장감 넘치는 예선을 거치고 다음 단계에서는 탈인이 도전하는데 그 3단계 중에 띄어쓰기를 하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문법에 맞게 띄어쓰기에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 방송 프로는 2003년 11월 첫 방송을 시작하여 무려 1000회를 넘어서었다. 매년 일반인 200명 정도가 참가하는데 띄어쓰기에 성공하는 확률은 1.6% 정도라고 한다. 나도 시청하며 가끔 풀어 보기는 하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다. 한글은 왜 이렇게 띄어쓰기가 힘들까. 아마도 한글이 처음부터 띄어쓰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국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이라 그런 것은 아닌가 하여 엉뚱한 상상이 든다.

구한말 1877년에 선교사 존 로스 목사가 처음으로 한글 띄어쓰기를 적용한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교재

를 냈고, 1896년 헐버트나 주시경 등이 한글 띄어쓰기를 현실에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쓰게 되었다. 헐버트 선교사는 1891년 왕실의 초청을 받고 교사로 와서 한글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만들었고, '가운데 짚짜기' 등 맞춤법 연구, 1893년에는 배재학당에 국문연구소를 설립해서 주시경 등 한글학자들을 배출했다. 1937년에는 지리산 노고단 선교사 수양관에 모인 선교사들의 논의를 통해 예레미야서를 제외한 구약성경의 한글번역본이 결정되었다. 성경의 번역과정에서 한글의 단어와 문법 등이 정리가 되었던 것이기에 한글의 역사와 성경 번역의 역사는 떼어놓을 수 없다. 한글의 띄어쓰기가 어렵긴 하지만 선교사들의 업적이라 여겨지니 한편으로는 더욱 뿌듯하다.

한글의 띄어쓰기가 힘든 만큼이나 시기적절한 때에 쉬를 갖는다는 것도 매우 어렵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을 현대어 번역에서 보면 "사도들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낱말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기를 떠나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다. 너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제자들과 조용히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다. 한글의 띄어쓰기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모두 힘든 시기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쉬를 얻기를 바란다.

기고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 대표·문학박사

"영화 가격 싸싸, 나라도 안 간다."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줄어들었다는 전제하에 소위 천만배우 최민식 씨가 최근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중들이 영화관을 멀리하게 된 원인으로 '가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그러나 그는 틀렸다. '바보야, 문제는 짚이야!' 천만배우라는 타이틀로 부와 권력을 얻은 건, 일정 부분 사이다 엔딩이라는 클리셰적인 주입식 결말에 어설픈게 넘어간 대중의 덕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천만배우의 권력을 발휘해, 예술성 있는 영화로 대중에게 보답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한국영화가 대중을 위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무엇인가를 역설하며 말이다.

그리고 보면, 한국영화 1000만 관객이라는 타이틀은 어떤 의미인 걸까? 관객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얻은

사이다 엔딩 한국영화, 주입식 결말이 아쉽다

권력일까? 이 천만 관객 돌파 영화라는 키워드가 나온 시점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극장 시스템은 멀티플렉스 위주의 대형 업계 과점 형태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관객만을, 흥행만을 노리고 만들어지는 영화는 그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 그리고 배우 역시 투자사와 동일하게 대중의 패스트한 감성을 역이용한다.

2003년의 '실미도',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 2014년 '명량', 2015년 '베테랑·암살', 2017년 '택시 운전사', 2022년 '범죄도시', 2023년 '서울의 봄' 등등, 이들 영화의 키워드는 대체적으로 정치, 역사, 정, 항일, 반공 등의 이른바 국뽕, 거대담론에 남근주의를 버무린 마라맛이다. 하나 같이 영화를 통해 '나'가 아닌 '우리', 즉 개인이 아닌 공동체주의가 우선시되고 있어 문제적이다.

결국 이러한 한국영화는 자신의 시너를 자처하며, 철저한 관습적 정의를 반복해 집단의 정서를 부추긴다. 그런 다음, 1000만의 순진(?)한 대중들을 주입식 사이다엔딩으로 계몽시키기를 반복해 부를 늘려온 것이다.

기실 영화는 예술이다. 건축, 음악, 회화, 문학, 무용, 연극 등을 종합한 총체적 예술이다. 영상은 언어로서 가능하며, 관객의 지각에 지속적인 자극을 준다. 또한 영화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 수단이

기도해 이미 적합한 인문학 콘텐츠로 자리매김 되어있다.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된 캐릭터를 중심으로 인간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출해내며, 여기에 영상은 캐릭터들의 내적 생명력을 포착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러한 열린 결말은 관객들에게 짙은 여운을 남기며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사고력과 상상력을 길러준다.

다시 말해, 영화를 통해 관객이 '나'를 발견하는 게 시대정신이라는 지적이다. 언제까지 '우리'만을 강조·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발상, 그야말로 구태의연의 반복이다.

최근 영화 '베테랑?'가 개봉한 지 3일 만에 20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그 인기(?)가 뜨겁다. 이 뉴스를 접하며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이 빠져들었다. 또 야! 언제까지 이른바 폭력을 정당화한 스토리, 사이다엔딩의 주입식 결말로 관객들을 현혹해 주머니를 털 생각인가?

바라건대, 이제는 예술영화의 비중을 늘리도록 관객, 연출자, 배우 모두가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천만배우들이여, 저 강남의 건물주로 뉴스를 타지 말고 실형적인 저예산 작가주의영화에 노גע런티로 출연해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社說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파업 명분 없다

인기 차종인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공장 가동 3년만에 파업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민주노동총속 금속노조 산하에 가입한 GGM 노조가 지난 8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쟁의행위 투표를 통해 85.9%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지역 경제계는 물론 전국적인 파장이 우려된다. GGM은 단순한 자동차 생산 기업이 아니다. 지역 노동계·경제계·시민사회·광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진통 끝에 만든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다. 이른바 '노·사·민·정'이 손잡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금씩 양보해 만든 기업이라 GGM의 성공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GGM은 단일 차종인 캐스퍼의 인기로 인해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다. 국내에서만 월간 4000~5000대 가량이 팔리고 있

고 이번 달에는 전기차 3000대가 유럽으로 첫 수출길에 오를 예정이다. 유럽 수출을 동력 삼아 연간 10만대 생산을 향해 가고 있고 연간 20만대 능력을 갖추면 광주에 부품 클러스터가 구축돼 청년들의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마당에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은 실리와 명분을 모두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GGM은 출범 당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작성하고 35만대 생산 이전까지는 임금과 근로 여건을 노사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상생협정서에 무노조·무파업 강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생산능력(35만대)을 갖출 때까지는 노조 결정을 잠정 연기한다는 지역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설혹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더라도 노사상생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농도 전남, 외국인 근로자 이탈 최고라니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은 각종 산업 분야는 물론 농축산산업에서도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국인은 인건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은 어렵게 구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율마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로, 농촌 현장에서는 대부분 농가가 개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탓에 비용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올해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노

동자는 계절근로제 노동자 8만2868명, 고용허가제(E-9) 노동자 27만984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입국한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 노동자 가운데 7465명이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이탈 노동자는 무려 총 2212명으로 전국의 45%나 차지했다. 이어 강원 1025명, 전북 785명, 충남 747명 등의 순이었다. 이렇게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자나 인권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 인력이 된 지 오래인 만큼 농업 등 공공성을 가진 단체가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의의 아래 외국인 노동자와의 계약을 전적으로 담당해 이탈을 막아야 한다. 또한 노동자에게 공정한 숙소를 제공해 노동의 여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無等鼓

'이도류'는 일본 검술에서 쓰는 말로 양손에 각각 칼을 쥐고 싸우는 검법을 말한다. 요즘은 체육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도류'하면 우선 떠오르는 선수가 MLB(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일본 출신의 오타니 쇼헤이다. 그는 16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이자 MBL 역사상 첫 '50·50'의 신기원을 연 타자이기도 하다. 마운드와 타석을 오가던 그는 지난해 9월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올 시즌 타자로만 전념했고, 54홈런·59도루라는 기록을 만들었다.

광주FC의 허을은 '축구계의 이도류'로 최근 화제가 됐다. 광주 금호고 출신의 허을은 '대형 신인'으로 주목받으면서 2020년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193cm 큰 키로 제공권 싸움에서 이점을 가진 그는 스피드까지 갖춘 특급 공격수 자원으로 꼽혔다. 하지만 확고한 자신의 자리를 구축하지 못했던 허을은 올 시즌 과감한 변화를 감행했다. 이정호 감독의 권유로 그는 시즌 중반 센터백으로 자리를 옮겼다. 팀의 '수비'가 흔들리자 허을은 뒤로 물러나 광주의 높이

를 더했다. 시즌 초반 교체멤버였던 그는 포백으로 선발 출장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

지난 6일 서울전에서 다시 공격 전면에선 그는 0-0으로 맞선 후반 28분 오른발로 서울 골대를 가르면서 3-1 승리를 이끌었다. 센터백 자리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에 생각하면서 만든 결과라는 게 그의 이야기였다.

시즌 중반 포지션 자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 도박이나 다름없다. 허을은 낯선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면 양손에 칼을 쥐었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많은 노력과 준비를 통해 그는 두 자리에서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많은 재능이 때로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KIA를 대표했던 투수 윤석민은 선발로서도 마무리로서도 최고의 능력을 갖춘 선수였다. 윤석민은 지도자들의 욕심에 두 자리를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부상 여파로 77승 86세이브라는 기록을 남기고 일찍 유니폼을 벗어야 했다. 역대급 재능에도 100승도 100세이브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洵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